

한식당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조형표현의 문화 해석

A Cultural Analysis on Korean Modeling Expression in Korean Traditional Restaurant

전성희* / Jun, Sung-Hui
김진옥** / Kim, Jin-Ok

Abstract

Cultural analysis is closely related to 'Space' which we live in. This means that the shape of the space is not formed accidentally but is a cultural result from how we live. The approach through cultural analysis of space provides a good standard in order to understand people's values and lifestyles.

Today the purpose of sightseeing has changed from just visiting some famous places to experiencing unique culture of other countries. Especially the demand of the sightseers which makes you experience culture through tasting food has been increasing. Yet there are some Korean restaurants that don't show enough Korean culture accurat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figural characteristics in Korean interior design with the method of cultural analysis and how they are expressed in the Korean restaurants. In addition, I'd like to suggest that Korean figural characteristics are not old fashioned but are modern things that have grate potential to be reinterpreted.

키워드 : 문화, 한국적, 조형, 한식당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문화'란 인간이 특정한 사회 속에 생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어떤 의미 있는 질서와 규칙성의 총체를 의미하며,¹⁾ 인류의 출현 이래 그들이 영위해 온 생활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우리의 삶에 많은 편리함과 이점을 가져다주면서 다른 문화의 유입을 가속화시켜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파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무분별한 타문화의 유입은 하나의 국가가 가지는 문화의 고유성 상실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문화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문화 고수는 죽어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화할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의 유입이 어떻게 자문화와 조화되고, 나름대로의 고유한 형태의 것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해석은 우리 삶의 터전인 '공간'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는 '집을 짓는다는 것은 복합적인 일련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된 문화적 현상이며, 그것이 속한 문화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²⁾ 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공간이 가지는 형태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나 어느 하나의 요소에 의한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 문화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을 반영하는 거울로서의 '공간'을 파악할 수 있고, 역으로 이러한 공간의 이해를 통해 그 시대의 사회나 문화를 파악할 수도 있다.³⁾ 즉, 공간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통한 접근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공간을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요구되며, 이는

1)이순중, 미래사회와 문화적 디자인, 디자인과 문화적 정체성, 계원 조형 예술대학, 가구디자인 전략 센터, 1999, p.15

2)Amos Rapoport, 이규목 편, House Form and Culture, 열화당, 1985, pp.72-119

3)박형진, 조선 후기 사회구조의 변화가 주거공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41호, 2003, p.19

* 정회원, 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 대학원 석사과정

** 정회원, 경성대학교 디지털디자인 대학원 조교수

타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준이 된다.

예전에는 명소를 방문하는 관광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타문화를 직접 체험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관광의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다. 문화체험 중에서도 미각을 통해 문화를 체험하려는 형태의 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식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보여 주는 데는 많은 미흡한 점이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한식당에서 보이는 한국적 문화의 차별성이 옛것의 답습 수준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 외국인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진부한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문화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그 나름대로 변화를 해야만 진정한 의미로서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진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화를 변화의 과정으로 보는 해석방법을 통해 한국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요소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연구해 보고, 한식당이라는 공간에서 조형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간의 조형적 표현에 있어서 한국적인 것이 결코 옛것의 답습에 의한 진부한 것이 아닌 현시대의 정서나 경향에 발맞추어 갈 수 있는 것으로 재해석 하고자 함에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문화 해석의 대상을 한식당이라는 상업공간으로 설정하였다. 상업 공간은 특성상 다양한 방향으로 디자인 될 수 있는 공간이자 변화의 속도가 주거 공간이나 공공 공간에 비해 빠른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식당은 한국적 문화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를 하나의 고정된 상황이나 상태가 아닌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으로 보는 역사적 문화 해석을 통한 분석 대상으로 한식당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사례분석 대상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부산의 남포동, 서면, 해운대, 범어사 지역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25곳의 한식당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방문을 통해 얻어진 사진자료로 사례분석이 이뤄졌다.

우선 이론적 고찰의 부분에서는 여러 문헌을 통해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해석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의 진화단계를 나누어 각 진화 단계에 따른 한국적 공간의 조형적 특성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해석 유형을 공간에 적용시켜 공간, 형태, 색채의 조형적 요소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문화의 정의

문화라는 용어의 개념은 시대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변천해 왔다. 그만큼 문화라는 용어의 정의를 내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문화 이론가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가 문화라는 말을 가르켜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난해한 몇 개의 단어중의 하나'라고 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아가서는 윌리엄즈는 '추상적이고도 절대적인 것으로서의 '문화'의 등장'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문화의 개념은 우리의 보통 생활 조건에서 일반적이고도 주요한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⁵⁾ 문화를 정의하려고 하는 시도는 이와 같이 저마다의 필요에서 생겨난 것이며, 역사적 변화에 대한 반응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1871년 테일러(E. B. Tylor)가 말한 최초의 문화에 대한 정의 이후, 1950년대에 문화 이론가 크뢰버(A.L.Kroeber)와 클루크혼(C.Kluckhohn)은 그들의 문화 정의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저서에서 문화에 대해 무려 300여 가지의 정의를 예로 들어 설명한 바 있다.⁶⁾ 크뢰버와 클루크혼은 문화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서로 상이한 관점에 따라 형성된 것임을 지적했는데, 이는 문화를 정의한다는 것이 결코 확실하고 견고하게 묘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⁷⁾ 이들은 문화의 정의를 분류하고 여러 가지 추상적 개념들을 연결하여, 크게 묘사적 정의에서부터 역사적, 규범적, 심리학적, 구조적, 발생학적 정의에 이르기까지 여섯 가지의 주된 유형으로 나누었다. 문화의 정의에 대한 이들의 유형 분석은 여러 갈래에서 조직된 개념들을 상호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⁸⁾

<표 1> Kroeber와 Kluckhohn에 의한 문화정의의 유형

묘사적 정의	'모든 인간의 생산물과 행동, 습관, 믿음의 총합이면서, 인간의 생산물과 행동, 사회적 종교적 심서와 같이 소위 우리가 문명이라고 말해 왔던 관습과 믿음의 총체'라고 보는 유형
역사적 정의	사회적 유산과 전통을 강조하는 유형으로 '문화를 단지 하나의 고정된 상황이나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과거를 보존하고 현재에 적용하고 미래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유형
규범적 정의	'모든 인간 집단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 불리는 행동 양식'을 지칭하며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어떤 사회의 특별한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 유형
심리학적 정의	문화란 생물학적 유전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게 특장지어진 학습된 행동 양식의 총합'이라 보는 유형

4)R. Williams, Keywords, Fontana, 1976, p.76

5)R. Williams, 1958:x v i, 295

6)A. L. Kroeber and C. Kluckhohn, Culture :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Vintage Books, 1952

7)A. L. Kroeber and C. Kluckhohn, 앞 책, p.79

8)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숲, 2001, p.23

구조적 정의	문화란 '현 사회 집단으로부터 추출된 상호 연관된 관습'에 적용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호 연관된 관습들은 다양한 관계를 통해 체계 속에서 통합되어 궁극적으로 문화라는 일종의 제도를 형성한다고 보는 유형
발생학적 정의	문화를 만들고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형

2.2. 공간에서의 문화적 조형 요소

(1) 자연환경·사회문화환경의 영향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예로부터 집단을 이루면서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끼리 어떤 특정한 형태의 생활 방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활 방식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사회문화환경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 속에 이러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환경의 영향은 공간 배치, 형태, 색채 등 다양한 조형적 요소로 표현되어진다.

인간은 지구상 어떠한 생명체보다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높은 생명체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의 생활 문화 환경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서로 다른 자연환경 속에 나름대로의 적응력을 발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연 환경에 따른 공간 문화 형성의 예를 들면, 고온 다습한 자연환경을 가지는 지역에서의 공간은 건조한 지역의 것보다 높은 곳에 공간이 배치되고, 석재가 많이 나는 환경에서는 석조건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내 공간 배치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발견된다. 즉,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의 공간 배치의 차이는 자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적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간의 조형적 요소는 사회문화환경의 영향도 받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 사상에 의한 남녀 혹은 신분계급의 차이는 공간 배치에 있어서 안채, 사랑채, 행랑채와 같은 형태의 배치를 갖게 한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환경은 주거문화의 형태나 색채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도 영향을 끼쳐, 각기 다른 지역의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구분 짓거나 혹은 유사 문화권으로 특성화 시킨다.

(2) 공간문화에서의 조형적 표현

조형의 어원은 희랍어의 '플라스티케' 또는 '플라스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플라스티케란 말은 그 후 플라스틱아(plastica)라는 라틴어로 쓰였는데 그 의미는 조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리를 뜻하는 것이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조형의 뜻은 '자연대상의 모방'이라는 의미로 변질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자연형상의 모방행위가 거부됨으로서 조형에 있어서 독자성이 추구되었다. 그 후 조형 활동의 양상이 변모, 확대되어감에 따라 조형의 의미를 자연의 예속이 아닌 독자성, 자율성, 순수성에서 찾게 된다.⁹⁾ 즉, 조형이란 관념적인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축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간에서의 조형적 요소는 문화의 영향으로 그 형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인류학자인 이시게 나옴찌(石毛直道)는 주거형태의 결정에 관한 이론에서 '주거형태는 한 사회의 총체적인 문화적 요인의 산물이며, 시간과 공간이 흐르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적인 상태의 것'이라고 하였다.¹⁰⁾ 이처럼 공간의 조형적 형태는 그 시대의 문화의 특징이나 생활의 모습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한다.

2.3. 문화 해석의 유형

문화를 변화와 적응단계로 설명하는 기존 이론들을 살펴보면, 이질(또는 외래)문화와 충돌하여 점차 수용, 동화, 변질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접촉 또는 충돌에 따른 변화의 과정은 변화를 일으키는 순서와 예민도, 선도성 등의 성질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¹¹⁾

이렇듯 문화는 시간에 따른 변동성을 가진다. 아무리 훌륭한 문화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지속될 수는 없다. 이는 문화를 영위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 바뀌고 그들의 사고방식, 관념, 가치체계가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며 이는 곧 문화의 변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체된 문화는 살아있는 문화라 할 수 없다. 문화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간에 공유되어지는 생활양식으로 시간의 개념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라는 개념이 과거와 단절된 어떤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문화는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되는 것으로 현대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그 내면적으로는 문화적 차원에서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에 대한 문화의 해석을 진화론적인 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전통 문화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표현한 '전통의 답습', 둘째, 전통 문화가 현대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전통과 현대문화의 융합', 셋째, 이입문화 또는 새로운 현대적 문화의 강력한 힘에 의한 '현대 문화 반영에 의한 재해석'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1) 전통의 답습

전통문화의 답습은 예전에 있는 의미나 형식을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아 재현시키는 것으로, 문화를 동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이러한 방식은 진화라고 하기보다는 정지 또는 퇴보로 받아들여진다.

(2) 전통과 현대 문화의 융합

전통과 현대 문화의 융합은 '전통의 답습'에서 '현대 문화 반영에 의한 재해석'으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로서 두 가지의 요

9)오근재, 입체조형과 새로운 공간, 미진사, 1991, p.11

10)石毛直道, 주거공간의 인류학, 가고시마 출판회, 1971, pp.182-184

11)정무용·고인룡, 주거 문화적 배경에서 본 주거의 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10호 통권72호, 1994, p.75

소가 드러난다. 즉, 이러한 공간에서는 전통적인 조형 요소와 현대적인 조형 요소가 한 공간에 표현된다.

그 예로 우리 문화 속에 서구의 문화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생활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좌식 문화에서 점차 입식 문화로 바뀌면서 공간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으나, 서구의 그것과는 다른 모습의 공간을 구성하고, 이에 맞춰 공간의 조형적 요소들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공간에서 많이 나타나는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고유성이 현대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 준다.

③ 현대 문화반영에 의한 재해석

현대문화반영에 의한 재해석은 이문화 이입에 따른 문화의 변동에 맞추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옛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 시대 실정에 맞도록 변화 혹은 타문화와 융합시키는 방법이다. 조형적인 부근으로 보았을 때 전통적인 요소가 가장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문화의 진화와는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문화적 차원의 동일성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문화 자체가 가지는 고유성은 이어가되 타문화와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간에서의 한국적 조형 특성

3.1. 공간 구성

(1) 상보적 이원성

한국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상보적 이원성은 내부와 외부, 개방과 폐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건축은 내부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외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는 이원성을 가지고 있다. 내부 공간적 외부 공간인 '마당'은 결국 완전한 내부도 외부도 아닌, 반외부 혹은 반내부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면서 내부로 이르는데 이러한 매개 공간을 거치는 순위적 질서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도 그 특징 중의 하나이다. 또한 한국의 전통건축에는 개방성과 폐쇄성이라는 서로 정반대되는 성격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이는 기후적인 요건으로 인한 공간의 구분으로, 온돌로 대변되는 방의 공간과 우들마루로 이어진 대청이라는 서로 상반된 공간을 형성한 예에서도 잘 알 수 있다.¹²⁾

한국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상보적 이원성의 특징은 서로 대조되는 성격 가운데 조화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간의 융통성과 가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2) 연속성

12) 윤정미, 실내건축에서 표현된 한국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2000, p.87

한국의 전통 건축 공간은 공간성뿐만 아니라 시간성을 함께 고려하여, 공간이 평면적으로만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연속적으로 경험케 한다. 즉, 한국의 전통 건축은 각각의 공간들이 여러 개의 경계에 의해 끊임없이 분리되면서도 유기적인 연속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특성으로 인하여, 한국 전통 건축은 주 공간으로의 진입 과정이 길며 일련의 연속적 공간 체계를 이룬다.¹³⁾

(3) 여백의 공간

한국 전통건축의 또 다른 특성은 여백의 공간의 존재, 그리고 그 공간에 자연스런 '있음'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허(虛)'에 의한 공간 표현이다. 여기서 '허'의 개념은 단순히 '무(無)'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어 있는 듯하면서도 채워진 느낌을 갖게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실체는 없으나 현상을 인정하며, 그 현상의 상호의존에 의해 형성되는 허공간은 확산적 공간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¹⁴⁾

3.2. 형태

(1) 탈기교성

자연스러운 선(線)적인 요소에 의한 구조적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난 공간은 대청으로, 대청을 이루는 기둥과 도리, 보 등의 기본 구조체가 흰 회벽을 배경으로 노출되어 나타남으로써 구조체의 선적인 요소들의 특성은 대청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서까래의 직선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 다듬지 않고 그대로 쓴 것으로 실제 직선이 아닌 곡선이며, 기둥이나 도리, 보 등도 약간의 굴곡이 있는 형태로 모서리를 깎아 둥글게 만든 직선인 것이다. 또한 대청에서는 비교적 세밀히 다듬었다는 창호의 틀도 모두 모서리를 둥글린 형태를 가짐으로써 실내 전체에서 세밀한 기교보다는 부드러운 자연 그대로의 소박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¹⁵⁾

그리고 탈기교성에 의해 정적이고 단조롭게 보여질 수 있는 공간을 선의 장단(長短)이나 굵기의 변화로 공간에 대한 동적인 표현과 울동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탈기교성에 의한 자연과의 조화와 소박미를 나타내고자 하면서도 그 속에 은은한 울동미에 의한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2) 비례의 미

방의 한 벽면에는 수직적인 다락문과 수평적인 벽장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서 비대칭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적 구성은 단조로운 방안에 생기를 준다. 이와 같이 벽면의 비대칭적 구성이나 은은히 비치는 창호의 살은 벽면으로

13) 이지연, 한국 전통 실내건축의 여허 공간의 개념과 결합방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0, p.14

14) 이지연, 앞 논문, p.3

15)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9, p.205

구성된 전통 실내공간의 면적인 통일성에 변화를 줌으로써 온화하고 차분하며 정적인 가운데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한국적인 공간의 조형적 특성을 자아낸다. 특히 벽체는 수직의 기둥과 수평의 인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 구조체 사이의 분할된 면들이 드러난다. 즉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인방이 지나가고 그 사이에 회벽이나 창호가 설치됨으로써 서로 다른 재료의 대비에 의한 면 분할이 이루어진다.¹⁶⁾ 이러한 면 분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례미가 느껴지게 하는 것으로, 정적인 분위기의 구조에 비대칭적 구성에 의한 동적인 느낌을 준다.

3.3. 색 체

(1) 색의 관념성과 위계성

한국문화 속에 반영된 색채의 특성은 색채를 감각적인 감정이나, 미적감수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의식했다기 보다는 음양오행적인 우주관에 근거하는 의미 또는 상징적 관념을 더 중요하게 의식하고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데 있다.

또한, 한국건축물에 반영된 색채를 보면 왕궁이나 사찰 같은 곳에서의 주색채는 유채색인 반면 일반 시민이 살았던 민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소박한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궁궐이나 사찰 등과 같은 건축물에는 적극적으로 채색장식을 하였으며, 이러한 단청(丹青)은 한국 건축의 대표적인 색채문화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¹⁷⁾ 한편, 민가의 건축에서는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의 자연색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벽면과 창호지의 흰색 그리고 바닥이나 회벽의 회색 등 민가의 공간에서는 대부분이 흰색 아니면 회색조의 무채색이 주를 이루어 인위적인 색조를 찾아볼 수 없는 무채색의 조화를 나타낸다.

이렇듯, 한국 건축물에서의 색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을 넘어 색 속에 의미를 담아 신분의 위계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즉, 상류층과 하류층이라는 구분에 따라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색도 오방색을 중심으로 한 유채색과 자연색을 그대로 드러낸 무채색으로 완전히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연색과의 조화

한국문화 속의 색채는 자연에 대치한다는 개념보다는 동화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색채의 사용도 전반적으로 약한 대비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음양(陰陽)의 중화(中和)라는 우리나라의 사상과 관련이 있어 공간지각의 개념으로 보면 극히 대립한다거나 입체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옹화적이고 평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옥외풍경, 건물 그 자체도 회색 돌담, 회청색 기와, 토담 등

강한 유채색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회색조의 빛깔은 자연의 사계변화에 따른 풍경의 색채와 잘 어울리는 한국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한국 건축물의 특징이 되어, 자연의 색과 대비될 때에 강하게 튀어나오지 않는 동색조화(同色調和)를 이룬다.¹⁸⁾

4. 한식당 조형특성의 문화적 해석

4.1. 한식당 실내공간의 현황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식당의 실내 디자인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식당이라는 공간이 상업적 이윤을 위해 운영되는 공간인 만큼 실내 공간에 대한 이미지나 시설의 개선에 대해서 경영자들의 투자가 없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맛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음식점을 선택함으로써 경영자 또한 실내 공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못 느끼므로서 이와 같은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내부 시설의 개선이나 이미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경영자라 할지라도 문화적인 색채반영에 대한 의식 수준이 아직 미흡하여 전통문화의 답습 정도에 머무는 경우, 또는 우리 문화와는 관계없이 이질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

셋째, 실내 공간에 투자를 한 경우의 한식당이라 하더라도 요즘 한창 유행이던 젠 스타일로 천편일률적인 내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한국적인 특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즉, 동양적인 느낌이 드는 내부 공간이긴 하지만 과연 외국인들이 봤을 때 무엇을 보고 한국적인 것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이다.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의 같은 동양권에 속해 있는 하나의 나라에 불과하다. 중국은 방대한 대륙을 가진 동양을 대표하는 나라이고 일본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서양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이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의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들에게 인식시켜 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4.2. 문화적 해석을 통한 한식당 실내 공간 분석

한식당 실내 공간의 조형적 특성을 문화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공간구성, 형태, 색채로 나누어, 이미지 분석표를 작성하였다. 이미지 분석표에 사용되는 개념의 기준은 전통의 답습 단계에서 가지는 특성을 기준으로 개념어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상반된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개념설정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전통의 답습 단계의 특성이 가장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출된 상반된 개념은 문화 해석 유형

16)박영순 외, 앞 책, p.207

17)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식, 미술세계, 통권 87호, 1992, p.40

18)정시화, 앞 책, p.39

의 진화 단계와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통의 답습 단계의 특성이 현대문화 반영에 의한 재해석의 특성과 극단적인 대립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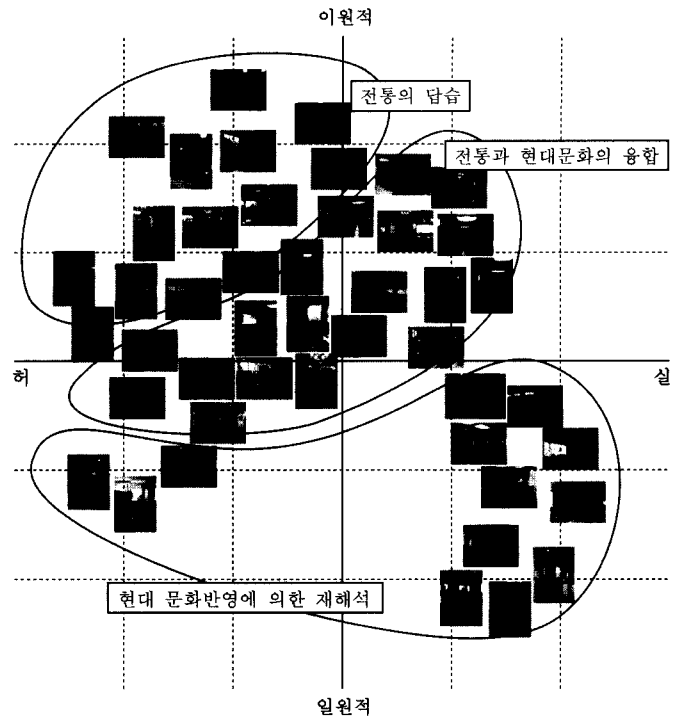
(1) 공간 구성 (일원적-이원적 / 허-실)

한국적 공간의 특성 중에서 상보적 이원성이라 함은, 한 공간이 내부와 외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거나 개방적이면서 폐쇄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서로 대조되는 성격의 조화와 가변성을 가지는 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상보 이원적 성격을 가지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이원적-일원적'으로 구분하였다. 대부분의 한식당의 공간이 실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내부적이거나 외부적인 특성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외부 공간의 느낌을 실내에 나타내고 있는 경우는 이원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 다른 분석틀로는 여백 공간의 특성에 따라 '허'와 '실'이라는 이미지 형용사로 구분 지었다. 여기서 '허'라는 개념은 '無'의 개념이 아닌, 비움의 개념으로 비움은 용도가 없는 빈 공간이 아닌 기능을 가진 공간에 여백의 미를 살린 경우를 말한다. 평면 공간(바닥)과 입면 공간(벽)에서 각각 비움의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의해 '허-실'의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한식당에서는 좌식과 입식의 두 가지 형태의 공간을 갖춘 곳이 대부분이며, 이는 주로 좌식 생활에 익숙한 우리의 문화에 서양의 입식 문화가 유입해서 두 문화가 공존하게 됨으로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전체적으로 탁 트인 넓은 공간으로 보이지만, 파티션이라든지 낮은 담장을 이용해 개방성과 폐쇄성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하나의 방과 방으로 구분지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미닫이 문이나 이동 가능한 파티션을 이용하여 공간의 가변성을 살린 이원적 공간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전통의 답습에서는 주로 개방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 이원적 공간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현대문화 반영에 의한 재해석 단계로 갈수록 고정적인 공간 구분에 의한 폐쇄적인 느낌의 일원적 공간이 많이 보였다. 이는 전통의 답습의 공간에서는 주로 좌식의 공간이 많은 것에 반해 문화 반영에 의한 재해석 단계로 갈수록 입식 위주의 공간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 개방성과 폐쇄성에 의한 이원적 성격이 점차 사라졌기 때문이다. 입식과 좌식이라는 두 가지 유형을 갖는 공간에서 이 둘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주로 대청마루의 형식을 도입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청마루가 가지는 이원적 공간의 특성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청과 같은 공간의 활용은 두 문화의 이질적인 두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공간 구성

<표 2> 공간 구성에 있어서 유형별 특성

	전통의 답습	전통과 현대문화의 융합	현대문화 반영에 의한 재해석
이원적 일원적	· 개방적, 폐쇄적 성격이 공존 · 좌식위주의 가변성을 가지는 공간	· 개방적, 폐쇄적 성격이 공존 · 좌식과 입식의 중간단계 · 대청마루의 활용으로 내부와 외부공간의 조화	· 실(室) 구분에 의한 폐쇄적 성격 · 대부분 입식위주의 불변적 공간
허(虛) 실(實)	· 좌식중심의 공간으로 허의 성격이 강함 · 의자 등의 가구가 거의 없으므로 인한 '허'의 느낌	· 진화 정도에 따라 허와 실의 느낌의 정도 차가 나타남	· 평면에서 '실'의 공간 구성과 입면에서 '허'의 표현 시도 · 가구 사용으로 인한 '실'의 공간 구성
실내사진			

공간의 평면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좌식 중심의 공간이 '허'의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입식 위주의 공간이 '실'의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식을 위한 가구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좌식 위주의 공간에서는 '방'이라는 공간의 개념으로 평면에서의 '허'의 느낌을 주는 공간이 많았고, 현대문화 반영에 의한 재해석 단계에서는 한국적 공간 표현을 위해 입면에 '허'라는 개념을 표현하려는 몇몇의

사례가 보였다. 하지만 이들 공간의 평면에서는 대부분 '실'의 느낌을 주는 공간이 더 많았다. 몇몇의 사례에서는 도입부나 톱의 벽면에 허의 공간이 보였지만, 이는 단지 '허'의 개념보다는 '無'의 상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2) 형태 (자연적-인위적 / 동적-정적)

우선 한국적 공간에 있어서 형태의 조형 특성인 탈기교성을 구분 짓는 이미지 형용사로 '자연적'과 '인위적'이라는 단어를 뽑았다. 탈기교성이라는 형태적 특성에서 볼 때, 자연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사용한 경우를 '자연적'이라고 하고 소재는 자연적이지만 인위적인 기교를 가미한 경우는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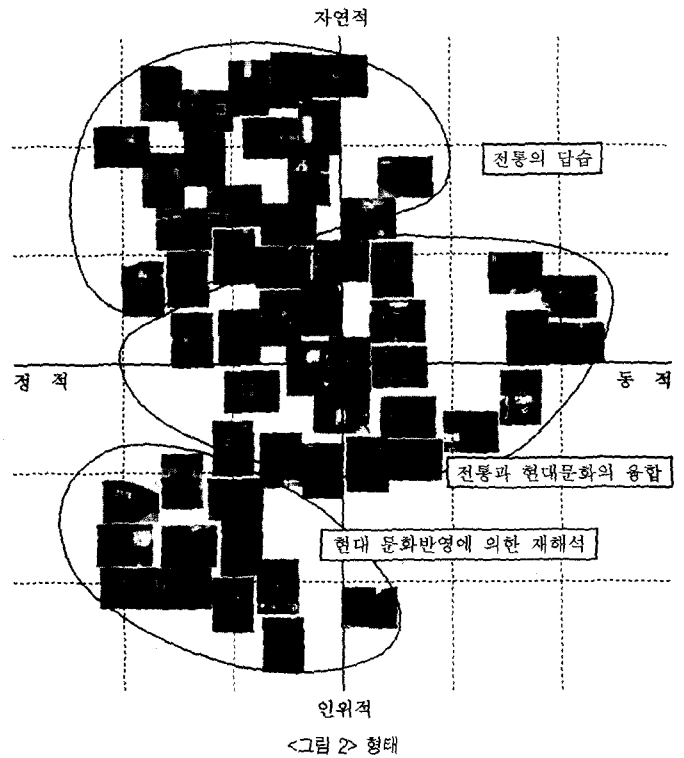
자연적 형태란 서까래나 기둥의 형태가 자연적인 나무의 형태 혹은 돌의 형태를 적용시킨 경우이며, 이에 반해 나무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반듯하게 재단이 되거나 돌 같은 자연적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대리석이나 타일 등으로 가공되어 사용되었을 경우는 인위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비례의 미의 이미지 형용사로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이미지들을 나누어 보았다. 즉, 형태의 배열이 대칭·비대칭인지 또는 수직·수평인지에 따라 정적, 동적이라는 형용사 이미지로 나누었다.

형태 중에서도 '선'이라는 조형요소는 한국적 조형적 표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며, 문의 창살 혹은 서까래의 형태에서 따온 경우가 많다. 선 중에서도 곡선보다는 직선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대 문화에 의한 재해석 단계로 갈수록 자연적인 느낌의 선보다는 인위적인 느낌의 직선 형태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통의 답습이나 전통과 현대 문화의 융합의 단계에서는 주로 자연적 형태를 그대로 살린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문화 반영에 의한 재해석의 단계로 갈수록 전통 건축에서 보이는 서까래나 기둥의 형태를 인위적인 직선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자연적 이미지를 주로 연출한 공간은 좌식 형태의 것이 많았으며, 이러한 좌식 형태의 것은 낮은 시선의 수평적인 선의 강조로 인해 전체적으로 정적 느낌을 주었다. 반면 인위적인 형태의 공간들은 좌식과 입식의 공간을 공유한 곳이 많았으며, 입식의 수직적인 선에 의해 자연적 이미지 형태의 공간에서의 정적 느낌보다는 동적 느낌이 들었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식당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보통 좌식 문화의 영향으로 정적인 느낌이 강했으므로, 동적인지 정적인지에 대한 특성보다는 형태를 얼마나 자연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표현했는지에 따라 각 단계의 특성을 구분 지을 수 있었다.



<그림 2> 형태

<표 3> 형태에 있어서 유형별 특성

	전통의 답습	전통과 현대문화의 융합	현대문화 반영에 의한 재해석
자연적 인위적	· 자연적 곡선 형태를 그대로 표현 · 좌식 형태의 공간으로 수평적 형태 강조	· 진화 수준에 따라 자연적 인위적 형태 공존 · 자연적 형태의 단순화 시도	· 인위적인 직선의 형태 · 입식 형태의 공간으로 수직적 공간 강조 · 직선위주의 인위적 형태를 자연소재로 완화
정적 동적	· 비례와 대칭의 공간분할에 의한 정적인 느낌	· 정적, 동적 느낌이 공존 · 인위적 기교형태에 한 동적인 느낌	· 강한 울동감보다는 동적인 느낌 속에 잔잔한 울동미를 느끼게 함
실내사진			

(3) 색채 (화려함-소박함 / 자연과의 조화-자연과의 대비)

색의 위계성에서 보인 색채 특성을 화려함과 소박함이라는 것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색채 이용에 있어서 계급차에 의한 사용제한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기준으로 공간의 색채를 분석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여기에서는 계급의 의미를 배제한 의미로 해석하기로 하였다.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청의 오방색과 같은 인위적인 색채 사용에 의한 관념적인 색채를 말하며, '소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소재의 있는 그대로의 색상을 나타내는 경우로 구분한다.

한국의 전통 공간에서는 마감재가 가지는 소재를 그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공간의 색채는 대부분 마감재의 색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서는 이런 색채의 특성을 자연색과의 조화와 자연색과의 대비로 구분지어 분석해 보았다. 자연색과의 조화는 있는 그대로의 소재감을 살림으로서 소박함이 느껴지며, 자연색과의 대비는 자연소재에다 인위적인 소재를 더 한 것으로 화려함이 표현된다. 자연소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고풍스러움을 나타낸 경우를 자연과의 조화로, 자연 소재의 색채를 변형시키거나 대비를 강조한 경우에는 자연과의 대비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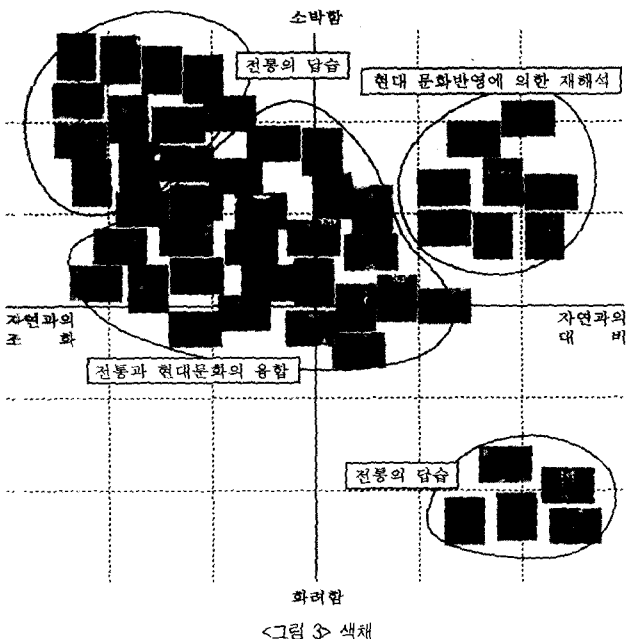
한식당에서 나타나는 색채 표현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색의 대비를 이용하여 공간을 표현하려고 한 것보다는 주위의 전체적인 배색과 조화에 중점을 두어 공간의 색채 감각에 있어서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주로 나무질감이 대부분의 색채 구성을 차지하고 인위적인 색을 입힌다 하더라도 자연의 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공간이 많았다.

전통의 답습 단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공간은 인위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자연과 대비되는 색채를 연출하기보다는 있는 소재 그대로를 표현하여 소박한 느낌을 주는 경향이 많았고, 문화반영에 의한 재해석의 단계로 갈수록 자연과 대비되며 화려한 느낌의 공간이 연출되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쉐인 스타일과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나무의 소재가 다크 브라운이나 검정 계통의 무채색으로 표현되는 공간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스타일의 경우, 인위적인 색감을 추가시켰지만 화

려함보다는 중후하고 단아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인공적인 미에 자연스러운 맛을 느끼게 하였다. 전통적인 답습 수준에 있어서는 자연의 소재에 의한 소박한 색채를 보이는 시도뿐만 아니라, 단청색을 그대로 나타내어 한국적인 것을 화려하게 표현하려는 시도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한국인들의 색채 사용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위적이며 화려한 것의 표현에 있어서도 자연과의 조화라는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표현한 것을 엿볼 수 있다.

<표 4> 색채에 있어서 유형별 특성

	전통의 답습	전통과 현대문화의 융합	현대문화 반영에 의한 재해석
소박함 화려함	· 자연의 소재감을 살려 소박한 느낌 · 주된 재료인 나무나 흙의 색감이 주를 이룸 · 화려한 단청을 사용해 관념적 색채로 표현하려는 시도가 보임 · 소재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냄	· 나무의 질감이 나타나는 색채 사용으로 소박한 느낌을 줄 수 있음 · 소재에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지 않음 · 전통색 오방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시도	· 자연소재에 인공적인 색감을 표현 · 화려하지는 않지만 강한 대비
자연과의 조화 대비	·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저채도의 색이 주를 이룸 · 화려한 색채도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색함	· 전통의 답습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채도가 점차 높아짐	· 우리나라 전통의 목재 색상을 대비되는 수입 목재 사용 · 인공 소재 사용 · 조명의 연출로 명암대비를 강조
실내사진			



5. 결론

오늘날처럼 문화 교류가 활발한 세계화 시대에 있어 고유한 자국 문화의 유지 및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 있어서 '문화적'인 해석은 계속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문화를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문화를 시대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보고 공간의 조형적 요소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문화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적 공간에서 나타나는 조형요소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한식당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 공간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적인 것의 표현에 있어서 대부분의 한식당이

전통의 답습이나 전통과 현대문화의 융합 단계에 해당하는 사례는 많았으나, 현대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진 사례는 드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한식당이 한국적인 것의 표현에 대한 모티브를 전통적인 것에서만 찾으려 했기 때문에 답습정도로 밖에 머물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한식당 경영자와 이 곳을 찾는 고객들의 의식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한식을 취급하는 곳이지만 인테리어는 그와 맞지 않는 서구식 인테리어를 따르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문화라는 것이 시대나 그 시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 발전해야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 한식당 인테리어의 문화적 해석의 수준은 아직 미흡한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통과 현대문화의 융합이나 현대 문화 반영에 대한 재해석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요즘과 같은 주5일제의 근무와 여유로운 생활은 패밀리 레스토랑과 같은 외식문화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아직 한식을 메뉴로 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식당은 극히 드물다. 이런 외식문화의 발전과 함께 한식당 인테리어 개발과 발전의 필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적인 음식 문화로 발전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해석하여, 한식당이라는 상업 공간에서도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간에 대한 문화적 해석의 연구는 한식당뿐만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끊임없이 이뤄져야 할 연구 과제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숲, 2001
2. 오근재, 입체조형과 새로운 공간, 미진사, 1991
3. 박영순 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9
4. 김원자, 이제 삶의 문화를 이야기 하자, 다지리, 2002
5. 이순중, 미래사회와 문화적 디자인, 디자인과 문화적 정체성, 계원 조형 예술대학, 가구디자인 전략 센터, 1999*
6. 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식, 미술세계, 1992
7. 힐리스 밀러, 이기우 역, 문화연구, 한국문화사, 1998
8. 石毛直道, 주거공간의 인류학, 가코시마 출판회, 1971
9. Amos Rapoport, 이규목 역, House Form and Culture, 열화당, 1985
10. Alexznder·Seidman 공저, 윤민재·남은영 공역, 문화와 사회,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1995
11. 이선민, 조형적 사고체계에 의한 실내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34호, 2002
12. 이주혜, 현대 실내디자인에 나타나는 한국성의 공간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34호, 2002
13. 서수경, 업무공간 디자인에 나타난 한국성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37호, 2003
14. 박지연, 국제학술논문에서 나타난 '문화'에 관한 연구의 최근 경향 분석,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38호, 2003
15. 박형진, 조선 후기 사회구조의 변화가 주거공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논문집 41호, 2003
16. 정무용·고인룡, 주거 문화적 배경에서 본 주거의 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10호 통권72호, 1994

17. 이종하, 한국현대건축가 작품에 나타난 전통성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2권 제1호, 2002
18. 이지연, 한국 전통 실내건축의 여러 공간의 개념과 결합방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0
19. 윤정미, 실내건축에서 표현된 한국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2000
20. A. L. Kroeber and C. Kluckhohn,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Vintage Books, 1952
21. R. Williams, Keywords, Fontana, 1976
22. <http://www.numaru.com/arch-culture.htm>

<접수 : 2004. 4. 30>